

사회

# 국·영·수 A, B형 중 선택

## 다문화가정 자녀 배려 2외국어에 베트남어 신설

### 교과부, 2014수능시험 기본 계획

현재 고교 2학년생이 2013년 11월 7일에 치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면 대처할 수 있도록 교과 중심의 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은 '과도한 시험 준비 부담이 없는 수능', '별도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수능',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수능'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중 국어·수학·영어는 현행 수능보다 쉬운 수준인 A형, 현행 수능 수준인 B형 등 수준별 시험을 도입해 수험생이 선택하도록 한다.

난이도가 높은 B형 시험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고,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도록 해 이과생에게 과도한 수험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어, 영어의 문항 수는 현재 50개에서 45개로 줄어든다. 국어 듣기평가(5문항)는 없어지고, 지필평가로 대체된다. 영어의 경우 45문항 가운데 22문항이 듣기·말하기 평가로 출제돼 영어시험에서 듣기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현행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직업탐구는 3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했다.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처음으로 신설돼 다문화 가정 자녀를 배려했다.

수험생이 받는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은 9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런 기본 계획에 맞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내년 3월, 시행 세부계획을 7월 중에 공고하며 성적은 11월27일에 통지한다.

### 2014학년도 수능 영역별 문항 수, 시험시간

구분영역	문항수	문항유형	배점	문항	시험시간
국어(택1)	A형	5지선다형	2.3	100	80분
	B형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2.3, 4	100	100분
수학(택1)	A형	5지선다형	2.3	100	70분
	B형	5지선다형 등기 22문항	2.3	100	70분
영어(택1)	A형	5지선다형	2.3	100	70분
	B형	5지선다형 등기 22문항	2.3	100	70분
사회/과학탐구(택2) 직업탐구(택1)	사회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과학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50
	직업	과목당 40	5지선다형	2.3	100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2	50

### 2014학년도 수능 영역별 출제범위

구분영역	출제범위(선택 과목)
국어(택1)	A형 화법과 작문 I, 독서와 문법 I, 문학 I을 바탕으로 다 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B형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I을 바탕으로 다 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택1)	A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B형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택1)	A형 영어, 영어 I
	B형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
사회/과학탐구(택2) 직업탐구(택1)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10 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8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기사·실업 5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기초베트남어, 한문 I 9과목 중 택 1

## 가뭄 들녘 적시는 최고 60mm 단비

### 오늘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장미영향권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면서 지리한 가뭄에 타들어가는 들녘을 적시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일 시작으로 제주도 부근해상까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호리고 새벽이나 오전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20~60mm,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은 5~30mm 사이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22~26도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남해상에서는 18일 새벽부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업이나 항해하

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에서 시간당 25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 제4호 태풍 '구솔'(GUCHOL·중심기압 940hPa)이 장마전선을 밀어 올리면서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19일 대부분의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이동하겠지만 '구솔'의 발달과 이동경로에 따라 남해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비가 그치고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 해질 19시 49분 / 달뜨기 04시 03분 / 달지기 18시 40분

**내일까지 많은 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9일까지 많은 비가 오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호리고 비	19/26°C
목포	호리고 비	19/29°C
여수	호리고 비	20/22°C
나주	호리고 비	18/26°C
완도	호리고 비	18/26°C
구례	호리고 비	19/26°C
강진	호리고 비	19/22°C
해남	호리고 비	19/22°C
장흥	호리고 비	19/22°C
순천	호리고 비	20/24°C
영광	호리고 비	19/26°C
진도	호리고 비	18/22°C
전주	구름맑음	19/30°C
군산	구름맑음	19/26°C
남원	구름맑음	18/30°C
옥산도	호리고 비	18/23°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지역	중양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1.0~1.5	1.0~1.5	1.0~1.5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1.0~1.5	1.0~1.5	1.0~1.5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1.0~1.5	1.0~1.5	1.0~1.5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날씨	최저/최고
19(화)	☁	20/28
20(수)	☀	19/29
21(목)	☀	19/29
22(금)	☀	20/30
23(토)	☀	20/31
24(일)	☀	20/29

## 20일 광주·전남 택시 '울스톱'

### 서울집회 참석 1만5000대 운행 중단할 듯

오늘 20일 광주·전남 지역 택시 1만5000여대가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지역 택시업계는 "오늘 20일 전국택시노조와 전국민주택시노조, 각 지역 운송사업조합 주축로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생존권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하루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대체와 ▲LPG 가격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감차보상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250여명의 택시기가가 상경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다른 택시종사자들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어서 출퇴근시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택시 업계는 18일 대책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 운행 ▲여수 세계박람회 지역(여수·광양·순천) 운행 등의 사안과 함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동안 정도에 따라 시내버스 예비차(42대) 투입 등 단계별 대응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택시기가가 상경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다른 택시종사자들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어서 출퇴근시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택시 업계는 18일 대책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 운행 ▲여수 세계박람회 지역(여수·광양·순천) 운행 등의 사안과 함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동안 정도에 따라 시내버스 예비차(42대) 투입 등 단계별 대응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운전 중 담배꽂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17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서 한 운전자가 피우던 담배를 차량 밖으로 버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임혜경 부산교육감 경찰 조사후 귀가

## 수원여성 납치 살해 오원춘 사형 선고

**'웃 로비 의혹' 관련**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웃 로비 의혹' 사건(본보 6월 14·15일자 6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은 임 교육감을 소환, 14시간여동안 감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17일 새벽 귀가시켰다.

경찰은 16일 낮 12시30분께 출두한 임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17일 새벽 2시35분께 돌려보냈다.

경찰은 임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4월16일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

명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웃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웃을 받은 지 한달 뒤 이를 유치원장이 유류출장 때 동행하게 된 배경과 유아교육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줬는지 등을 캐물었다. 임 교육감은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며 "임 교육감은 의

혹 부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해명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담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가가 임 증명되면 주중에 임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되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기관통보' 조치만 하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사체의)절단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음부터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의사내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오원춘이 피해자를 자신의 신원노출에 대한 위협에 개치지 않고 납치 감금해 살해했고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검색해 보는 등 매우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점을 들었다.

**운전 중 담배꽂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도 부과... 입법예고**

운전 중에 담배꽂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꽂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꽂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기념식 및 반부패궐기대회

〈창립추진위원장〉 박길무

**모시는 글**

부패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국가 최고위 인사들의 부패와 관련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자괴감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패 문제가 계속 심화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점점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조, 청탁, 접대 및 전관예우 등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다양한 부패 문제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은 투명한 지역사회 건설과 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한 여러분의 의지와 힘을 함께 모으고자 '반부패 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기념식 및 반부패궐기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부디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추진위원장 박길무

**고문** | 김양균 (변호사, 전. 초대헌법재판관)  
김장환 (전. 전라남도교육감)  
윤귀환 (거자서교회 원로장로, 보명실업회장)  
김관재 (변호사, 전. 광주고등법원장)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일시** | 2012년 6월 26일 (화) 14:00~

**장소** | K.T (3층) 회의실(동구청 옆)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후원** |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일보사·호남일보사

**매일방송(주)에버뉴스**

**사무실** |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36번지 (2층) ☎ (062)228-4747(대)